

윤남기♥이다은, 재혼 과정 담는다… '돌싱글즈 외전'

등록 2022.02.21 14:07:16



[서울=뉴스시스] '돌싱글즈 외전-가족의 탄생' 영상 캡처 . 2022.02.21. (사진= MBN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황지향 인턴 기자 = 인기를 누린 MBN '돌싱글즈' 스피ن 오픈 프로그램이 나온다.

21일 MBN에 따르면, '돌싱글즈 외전-가족의 탄생'(이하 '돌싱글즈 외전')이 MC로 유세윤-존박을 캐스팅하고 3월14일 오후 11시 첫 방송한다.

'돌싱글즈 외전'은 지난해 주목 받은 '돌싱글즈' 시즌2의 출연자 윤남기·이다은의 방송 후 이야기를 담은 5부작 리얼리티 예능이다.

앞서 두 사람은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이다은의 4세 딸 리은 양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. '돌싱글즈 외전'에서는 이들이 재혼 과정과 '현실 가족'이 돼 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.



[서울=뉴스시스] 유세윤, 존박 사진 . 2022.02.21. (사진= 엘디스토리, 뮤직팜엔터테인먼트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 매 및 DB 금지

이날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TV를 통해 공식 티저 영상도 공개했다. 영상에서 윤남기·이다은은 둘만의 공간에서 달달한 이마 키스를 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어간다. 윤남기는 "우리 여기서 같이 살까?"라며 동거 프러포즈를 해 '돌싱글즈 마니아'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.

잠시 후 윤남기는 이다은의 부친과 마주 앉는다. 재혼 전 동거부터 하고 싶은 두 사람의 미래에 이목이 쏠린다.

제작진은 "윤남기·이다은 커플을 방송 후에도 뜨겁게 응원해주신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5부작 '돌싱글즈 외전-가족의 탄생'을 기획하게 됐다. 현실 재혼 과정이 또 한번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'돌싱글즈'만의 재미와 감동을 안겨줄 것"이라고 전했다.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hjhj7289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